

‘천사의 섬’ 신안,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사계패랭이·송엽국·진자주 국화 등 40만본 식재

군, 봄부터 14개 읍·면 보급...관광객 볼거리 제공

신안군 1004개의 섬이 연중 꽃피는 섬으로 다시 태어난다.

군은 4월 “을 봄부터 사계패랭이, 송엽국, 벵베나 등 3종의 지피식물과 부용화, 붉은접시꽃, 진자주겨울국화 등 자체 선별한 다년생 화초 40만본을 14개의 읍·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계절별로 꽃을 달리해 매년 40만본의 다년생 꽃을 직접 생산해 분양하고 있다. 6년간 무려 240만본의 꽃이 식재된 것이다.

식재 장소로는 관광객이 배를 타고 내리는 선착장, 주요 도로변, 공항지 등으로, 섬 곳곳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5만본이 식재될 예정인 사계패랭이(왼쪽)와 신안군이 자체 개발한 진자주 국화.

올해 5만본을 생산·공급하는 사계패랭이는 3월 중순 식재하면 1년 내 내 계속 꽃이 피는 지피식물이다. 군에서 자체 선별한 진자주 국화

는 가을에 피는 국화와 달리 11월부터 꽃망울을 터뜨려 다음해 1월까지 꽃이 피는 종이다. 지난 2011년부터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신안을 대표하는 겨울 꽃으로 명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신안 1004개의 섬을 사계절 꽃 피는 청정섬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에 수만본의 꽃들이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고 말했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은 국립다도해해상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

성금·후원물품 기탁 잇따라

55개 개인·단체 참여

해남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에 군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알려지면서 지난달까지 모두 55개 개인·단체의 성금과 후원물품이 담지됐다.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신화상을 입은 상규(4)군에게 한 지역약국이 치료비로 100만원을 보냈으며 겨울의투 하나 없이 동생의 엄마 노릇까지 하는 여고생 지영(17)양에게는 지역 학생복매장에서 교복을 후원했다. 해남읍 공간아파트 입주민들도 심시일반 모은 48만원을 지영양에게 전했다.

지난달 27일 한돈협회 해남지부에

서는 ‘사랑의 한돈’ 320박스(1박스 3kg)를 무료급식시설 등 67개소에, 지난달 28일에는 해남군 4-H회에서는 직접 경작한 ‘사랑의 쌀’ 25가마(1가마 20kg)를 취약계층 아동 25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해남소방서에서 조급씩 모은 후원물품을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팀에 건넸다. 군은 이를 해남읍의 독거노인과 삼산면의 조손가정에게 전했다.

해남소방서 박병찬 단장은 “업무 중에 알게 된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밝히 이 봉사를 계속해 가고 있다”며 “따뜻한 해남이 되는데 소방관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눔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단체 및 해남군민은 희망복지지원단(061-530-5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매생이 채취 한창. 최근 완도군 약산면 주민들이 매생이를 채취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달 중순까지 매생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 제공)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윤곽’

전주 시의원 선거구 한곳에서 최대 4명 선출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도내 일부 선거구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4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현행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전주지역의 선거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등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전주지역 도의원 제5선거구는 현행 1·2·3·4동에서 3·4동으로 조정되고, 제3선거구는 현행 삼천 1·2·3동에 1·2동을 포함시켰다.

시원의 경우, 현행 14개의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대신 일부 선거구를 통합, 뽑는 의원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이를테면 각 2명을 선출했던 ‘전주 가’와 ‘전주 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전주 가’ 선거구로 통합 조정되고 이 선거구에서 한 번에 의원 4명을 뽑는 셈이다.

또 고창지역의 ‘고창 가’ 선거구에 들어 있던 아산면은 ‘고창 라’ 선거구로 편입된다.

완주군은 의원정수는 변동 없이 용진면을 ‘완주 라’ 선거구에 편입하는 안과 ‘완주 리’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고 ‘완주 다’ 의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마련됐다.

도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물어 최종안을 오는 14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의회를 통과하면 이를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철모 행정지원관은 “전주시에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중선거구제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라면서 “한 곳에서 4명을 뽑는 만큼 아무래도 군소정당 출신이나 신인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순창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가구에 1억24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전라북도과 재원을 분담해 4800만원의 예산으로 3가구 정도의 무주

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순창경천주공아파트 입주자로 확정돼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이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으로 하며, 가구당 한도액은 16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개점휴업’

작년 준공...예산부족 인력·장비 없어 연구 차질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연구하는 전북대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지난해 준공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3월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 익산캠퍼스 동물농장 터에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기공식을 했다.

이 연구소는 수차례 공사가 연기된 끝에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 등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전북대는 연구소 설립으로 전염병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 연간 8조 원 이상의 국민총생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됐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후속연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에는 교병원성 질병의 외부 노출을 막는 차폐시설조차 없다. 또 핵심 연구시설인 유전자 증폭기와 실험동물 무균함 등 30여개의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15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올해 장비 구입 등 115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24억원에 그쳤다.

연구소 관계자는 “가족 전염병에 의한 축산 피해는 매년 커지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연구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연구소는 인수공통전염병과 국가재난 질병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라며 “연구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센터(전주전문화연수원)가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1일부터 23일까지 제3회 인문학 캠프를 연다. 사진은 제2회 인문학캠프 모습. (전주시 제공)

무안군 장학금 모금 무리수

기탁자 대부분이 郡 사업 수주·인허가 업체

“군, 행정적 압력 행사... 강제 기탁” 지적

무안군이 승달장학금 모집 과정에서 관내 업체들에게 사업인허가 불허나 지연 등 행정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부가 아닌 사실상 ‘강제 기탁’ 수준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반기 23억5000만원이었던 승달장학금은 김철주 군수 취임 이후 현재까지 4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장학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은 군비 출연과 1억원 이상 거액 출연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은 2년이 안된 기간에 무려 12억원의 군비를 출연했다. 또 이 기간에 1억원 이상 기탁자는 4명으로, 모두 5억원을 냈으며, 군 사업 관련 공사업체나 인허가 업체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210명의 기탁자 가운데 보조금이나 불법 묘지조성 행정대집행 관련자 등이 포함돼 있고 균형 직권 기탁자 42명 가운데 상당수가 인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초지 조성 불허와 관련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했으나 군은 관결 7개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려다가 지난달 6일에야 예비조건 허가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 사업자는 그 후 지난달 21일 승달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무안군 청계면 소재 한 골프장은 준공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후 조건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정부 산부 자유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한 농업 협회도 장학금 수천만원을 기탁한 후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군이 인허가나 공사 수주 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행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목포 시내버스 수입내역 투명해진다

市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본격 시행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현금 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을 책정, 지난 3월 전남·목포소비자연맹과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참여 희망업체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

해 확정했다.

1년 동안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운영하게 될 전남·목포소비자연맹은 앞으로 확인원 2명을 2개 시내버스 업체에 상시 파견해 차량별 수입금 집계여부, 집계 결과 출차 버스 요금 할 분인 등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상황 등을 감독하게 된다.

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목포=고규식기자 yousou@

단신

순창 7일부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행정적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순창군은 지난 1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과 관련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정보와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개기로 했다.

이번에 구축된 계약정보공개시스

템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정보 열람은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sunchang.go.kr)에서 가능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독거노인 대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고창군은 생활을 전적으로 혼자 해결해야 되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동처리반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2498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도매 전담반을 운영, 1087세대 주택의 도매를 지원하는 등 358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다. 문의 전화는 061-560-2382, 2384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도교육청, 혁신도시 초·중학교 각각 1곳씩 개교

전북도교육청은 4일 “3월1일자로 전주혁신도시지구에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1곳을 개교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전주온빛중학교는 36학급 규모로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다.

또 전주 만성초등학교(36학급)와 병설유치원이 전주시 만성동에서 중등학교 1곳을 함께 이전해 개교한다. 내년 3월에는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예술의 전당, 지역 문화공간 자리매김

지난해 개관한 군산 예술의전당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 예술의전당은 4일 “지난해 5월1일 개관한 후 총 187회 공연과 48회의 전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시·군 공연장의 두 배 수준의 이용률이다. /군산=박희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문화 조성교육’과 ‘꿈다락 토요공연감상’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 4000여명이 참가했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7~8일 올해 첫 기획공연인 뮤지컬 ‘명성황후’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